

나는 어떻게 「제3세계 도서관방법론」 을 말하게 되었는가?

나는 보통의 경우 보다는 조금은 더 길다고 할 수 있는 북미에서의 생활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표면에 내세울 수 있는 논리나 계획 따위가 전혀 먹혀들어 가지 않는 어떤 심리적 상황과 외적 조건 속에서 그렇게 성립되어 버린 것이다. 세상살이의 이치가 매우 그러하듯이 이제 이 경험은 나의 삶과 학문에 있어서 플러스 요인이 되고 있기도 하며 마이너스 요인이 되고 있기도 하다. 가령, 한국의 도서관학계처럼 '북미'의 비중이 큰 곳에서는 그곳 자체를 잘 안다는 것이 도움이 되는 때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다른 한편, 이와 한국에서 학문생활을 할 바에야 그렇게 긴 외국경험이 무슨 소용이겠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나는 오늘 내게 있어서 행이라면 행일 수 있으며, 불행이라면 불행일 수 있는 나의 오랜 북미에서의 경험을 전제로 삼으면서, 그것을 발판으로 하여, 우리나라에서의 강단도서관학과 도서관현장의 경영에 다같이 매우 커다란 중요성을 가지게 되리라고 믿어지는 한가지 방법론적 성찰을 해보려고 한다.

그럼, 이야기를 푸는 순서로서, 좀 쑥스러운 면이 있긴 하지만 나의 노스 아메리칸 오디세이 얘기부터 시작해 보기로 하자. 이점 독자들의 양해를 구한다.

나는 1971년 여름에 이른바 '유학'이라는 과정을 밝기 위하여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그때까지 나는 약 4년 동안 올해 성균관대학에서 정년을 맞이하시는 이춘희 교수님 밑에서 학문을 물으며 그분의 일을 돕고 있었다. 비행기에 오를 때 나의 계획은 한 두세 해 동안 그야말로 '유학'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빨리 돌아와 우리나라에서 학문생활을 한다는 것이었다. 이춘희 교수님께서도 작별인사를 받으시는 자리에서 그렇게 하도록 당부를 하셨다.

그러나 운명의 신은 나 자신과는 사뭇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듯하다. 우선, 나는 두세 해 만에 돌아오지 못하였다. 그것도 예정기간에다 자그마치 10년을 더 보탠 세월, 정확하게 12년 반을 북미 땅에서 보낸 뒤 1984년 봄에야 귀국하게 되었다. 그것이 내가 동지들과 더불어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처음에는 '도서관학')의 동지를 틀게된 경위와 사연이기도 하다. 그것은 역설적이게도 우리나라의 30개 4년제 대학 도서관학과 가운데 30번째의 학과이기도 했다.

처음의 계획이 빗나간 것은 비단 체류의 기간에 한정되지 않았다. 나는 12년 반 동안 그 일부는 미국에서, 또 다른 일부는 캐나다에서 보내게 되었다. 우리나라를 떠난던 때 나의 의식 속에 캐나다란 들어있지 않았다. 그리고 떠날 때 물론 '도서관학'만을 생각했다. 나의 학사배경이 영문학이었던 관계로 그 이후의 공부는 도서관학만으로 하기로 했던 것이다. 그것도 빗나갔다. 나는 도서관학 공부를

어느 정도 마쳤을 때 문서학(archival studies)의 공부를 더 해야겠다는 욕구의 발동에 밀려 역사학(교육사학) 쪽으로 넘어가게 되었으며, 결국 거기서 문서학과 역사학을 종합하는 논문을 써 학위를 받게 되었던 것이다. '유학'으로만 생각했던 계획이 캐나다의 한 역사연구소에서의 7년간의 직장생활로 연장된 것 또한 하나의 빚나감이었다.

위에서 말하였듯이 나는 1984년 3월에야 1971년 내가 북미를 향해 떠날 때 나 스스로와 맺었던 귀국의 약속을 지키게 되었다. 나는 드디어 나의 태생지 경주지방과도 크게 멀지 않은 부산대학 캠퍼스에 안착을 하게 된 것이다. 그렇게 시작한 부산대학생활이 이제 만 10년이 차 오르고 있다.

내가 긴 외국생활을 배경으로 배치하면서 부산대학교 생활을 전경으로 깔고 작업에 들어간 1984년 봄학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의 첫학기 중, 나에게 중요한 '사건'이 벌어졌다. 나는 그것을 '사건'이라고 표현할 수 밖에 없다. 나는 그야말로 신기한 '의문'과 충격에 휩싸이게 되었다. '발견'이라면 '발견'일 수도 있었다. 그것은 매우 높은 차원의 지적이며 학문적인 과제에 속하는 '의문'이며 '발견'이었던 것이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은 과연 그것이 무엇이었다고 생각하는가?

그 해 봄 내가 부산대학의 어느 건물 5층의 한 방에 자리를 정하고 나서였다. 독서와 강의를 하는 틈틈이 도서관학과 관계의 사람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며 부산과 서울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다른 지역도 포함하여 여러 도서관의 현장들을 관찰하며 익혀가던 그 때였다. 나는 중요한 학문적 화두(話頭)와 맞닥드리게 되었다. 왜 현실과 언어가 서로 다를까? 왜 도서관의 현장은 저처럼 아득히 낙후해 있는데 강단의 언어는 이처럼 첨단을 달리고 있는 것일까? 과연 저 도서관현실 앞에서 이같은 언어의 유희를 일삼고 있을만한 여유가 우리에게 있는가?

다음 학기가 되었다. 학교 뒤 금정산에 단풍이 불붙기 시작했다. 나의 화두에도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나는 여전히 강의와 독서를 하는 한편 대화와 방문을 계속하고 있었다. 부산대도서관, 부산여대도서관, 초읍의 시민도서관, 서면의 부전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분관, 서울대도서관, 경북대도서관 나는 이런 식으로 닦치는 대로 보고 또 보며 다녔다. 지금 생각하면 나의 눈에는 분노의 살기가 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 속에서 나의 화두는 조금씩 구체성을 띠어가기 시작했다. 나의 질문은 이렇게 바뀌었다. 왜 현실은 엄연한 한국의 현실인데 강단의 언어는 외국어인가? 이것은 12년반 동안이나 내가 익히 알고 지내던 바로 그 외국어가 아닌가? 형식만 한국어로 뒤집어 썼지 내용은 외국내용 그대로그가 아닌가? 그런데 우리에게 그 언어의 전제가 되는 현실이 없지 아니한가? 여기가 어디 미국의 51번째 주라도 된단 말인가? 그 때 나의 눈 앞에는 너무나도 한국적인 도서관 현장이

처연하게 땅위에 누워 있는데 강단의 언어와 전망은 외국어로 하늘을 날고 있었다. 병은 보통의 한국 병인데 처방은 턱없이 고급이었다. 그것은 첨단 의 수입외제 처방이었던 것이다. 나는 정말 혼란스럽고 괴로웠다. 그리고 자문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과연 우리가 이려고 있어도 되는 것인가?

이야기를 미쳐 다 시작도 하기 전에 지면의 제약 을 느끼게 된다. '도협칼럼'의 지면 7장은 이미 넘었고 14장도 넘었을 가능성이 있다.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수 없다. 승하고 전하는 부분은 건너 뛰기로 하자. 바로 결로 나아가자.

나는 내가 80년대 전반기에 맞닥드렸던 학문적 화두-현실과 언어의 괴리현상-와 80년대 후반, 구체적으로 87년 가을학기 이후 약 2년간에 걸쳐 부산대 캠퍼스에서 진행된 '도서관개혁운동'은 서로 무관하지만은 않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학문의 '실천성' '현실적합성'이란 측면에서 서로 통해 있다고 생각한다. 동시에 나의 학문적 화두는 90년대 초의 부산대 캠퍼스에서 생산되어 나온 대학원생들에 의한 『학기논고집』과도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은 거기서 전술전략의 자생성을 거론하고 있다. 한국의 지형지물에 맞는 전법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상황 앞에 선 나의 선택은 무엇인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에게 있어서 방향을 나 스스로 지난 10년 동안 그 형성 과정에 일익을 담당하였으며 오늘은 나 자신 그 일부가 되어 있는 지적 흐름의 '관성' 속에 이미 주어져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동지들과 힘을 모아 학문의 '실천성'을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

나는 80년대 후반 대학원 과정을 개설하기 위하여 동료들과 더불어 커리큘럼을 짤때 거기에다 난데 없이 '제3세계 도서관방법론'(처음에는 자구가 약간 달랐다)을 끼워 넣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때 나는 매우 막연한 예감과 기대 속에서, 어떤 불가항력의 안타까움 속에서, 저처럼 엉뚱하다면 엉뚱하다고 할 수 있는 강좌제목을 달았던 것 같다. 한 5년 동안 설정해 오면서 제1세계도 아니며, 제2세계도 아닌, 제3세계적인 방법을 말해오는 사이 이제 약간의 자신과 확신을 얻게 되었다. 나는 90년대 내내 '제3세계적 방법론'에 대하여 좀 목청을 높여볼 생각이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속에 있는 언어와 현실의 간격을 좁히며, 우리의 의식에 깊이 들어와 있는 언어의 식민지성을 극복하여 마침내 우리의 학문이 생산적이며 현실개혁적인 것이 되도록 하는데 보탬이 되어볼까 하는 것이다.

(김정근/부산대 문헌정보학과)